

“아이의 학교생활·입시 고민 함께 나누는 창구예요”

| | |
|-------|------------|
| 거주 | 대구 동구 신사동 |
| 자녀 | 고3, 고1, 초3 |
| 구독 기간 | 10개월 |



안녕하세요. <내일교육>은 어떻게 처음 만났나요?

첫째 고2 겨울방학 때 구독을 신청했어요. 사실 교육이나 대입에 대해 잘 몰랐는데 어느 날 아이가 “엄마 아빠는 고등학생 자녀를 너무 쉽게 키우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내일교육>을 꾸준히 읽다 보니 이제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하고, 대화도 잘 이어나갈 수 있게 됐어요.

<내일교육>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대입이나 고교 교육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어요. 수시 합격생이나 학생 인터뷰를 보다가 아이들이 관심 있어하는 주제나 읽어봤으면 하는 기사가 있으면 복사해서 책상에 두곤 해요. 엄마가 하는 말은 잔소리로 들릴 때가 많으니 글로 전달하는 거죠.

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 인터뷰, 전공 관련 도서 소개 등 다양한 내용이 있어서 좋아요.

자녀 교육과 관련해 고민이 있거나 다뤄줬으면 하는 기사가 있나요?

부모 세대는 조금이라도 더 이름이 알려진 대학에 가는 게 목표였던 것 같아요. 물론 요즘도 대학에 대한 인식은 비슷하지만 그래도 좀 달라졌다고 봐요. 첫째는 지역 거점 국립대를 졸업하고 교환학생으로 미국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이모를 보고 대학 이름보다는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학과나 교환학생 프로그램 등이 잘돼 있는 대학을 찾고 수시 원서를 쓰더라고요. 꼭 명문대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룬, 혹은 그 꿈을 찾아가는 이들의 이야기가 소개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아이의 정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성적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녀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알려주는 기사, 또 자녀의 정서에 도움이 될 만한 기사를 자주 게재해주면 좋겠습니다. @

Reporter's A/S

〈내일교육〉은 대입이나 교육에 관한 직접적인 내용도 다루지만 ‘꿈 찾는 생생 일터뷰’ ISSUE INTERVIEW 코너에서는 다양한 일터에서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의 멘탈을 책임지는 심리 코칭가, 정그린’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수의사 설채현’ 등의 인터뷰 기사들을 통해 직업에 대한 관심, 동기부여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본지 1152호
ISSUE INTERVIEW
‘심리 코칭 정그린’
“넘어졌다고?
배우고 다시
일어서면 돼요”
기사 참조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일교육〉 편집부입니다.” 어느 날 불쑥 전화를 받는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평소 느꼈던 아쉬움이나 칭찬하고 싶은 내용을 솔직하게 전해주세요.

독자가 뽑은 베스트 기사



꿈 찾는 생생 일터뷰_ 아시아나항공 인천운항정비팀 항공 정비사 이두울 안전한 비행을 책임지는 항공기 주치의

“어렸을 적 뚜렷한 꿈이 없었다는 인터뷰이가 항공 정비사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 인상적이고 좋았어요. 요즘 일찍부터 진로를 찾아야 한다는 강박이 큰데 기사를 읽으며 위안을 받았어요.”



2024 수시 합격생 릴레이 인터뷰 7_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구연우 사회적 약자 향한 따뜻한 관심 복지 정책에 달라

“학생들의 수행평가나 보고서 주제, 자료를 보며 놀라기도 합니다. 첫째 아이가 행정학과나 사회복지학과에 관심이 있어 더 유심히 읽었어요. 복사해서 아이의 책상에 슬쩍 두었는데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웃음)”